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향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사무국 직원 채용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정읍 지향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실무 추진기관인 '지향 융복합사업단'의 사무국 직원을 채용한다.

지향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 정읍 특화직업인 '지향'을 활용한 생산·가공·체험관광 산업의 융복합 촉진과 인력 양성, 가공·체험상품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총 2명이며, 근무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다만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사업 기간 내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당 업무는 사무국장은 사무국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은 사업비 집행과 사업 결과 보고, 정산서류 작성 등 사무국 운영업무를 보조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

부안군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1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주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부안해돋이마루 1대, 선해수욕장 1대를 설치하였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자원순환 무인 회수로봇으로 페트(PET)병을 투입하는 기계이다. 이용 방법은 기계화면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면 리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수거된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슈퍼빈 홈페이지(superbin.co.kr) 또는 휴대폰 앱에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 포인트 현금 신청 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페트병은 분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의류, 부직포와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도보 5분내 모든 사회복지 완비'

고창군 사회복지복합타운, 사회복지시설·보건소 집적화... 내년 고령자복지주택 완공

전북 고창군이 통합돌봄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고창읍 읍계리의 '사회복지시설 지구'와 마을복지우수사례, 친환경 장사시설 등을 연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지구 안에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직업훈련시설 △푸드마켓·뱅크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완공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와 연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햇살 좋은 빨래터(10개소) △전라북도 최초 공설자연장 2개소 등을 주요 사회복지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군은 견학프로그램으로 꾸려 홈페이지와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관련 조직 등에 알리기 위해 홍보책자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정 핵심 목표로 안전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펼쳐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풍미인 쌀' 대미(LA) 수출... 쌀값 폭락 돌파구 마련

20톤 5000만원 물량 수출... 정읍 농산물 우수성 알려

정읍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단풍미인 쌀이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9일 올해 두 번째 미국(LA)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은 쌀 소비량 감소와 지속적인 쌀값 하락, 현 수확 대비 2022년산 쌀의 공급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한 가운데 정읍시와 정읍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RPC), 지역 농협들의 노력 끝에 해외수출 관료 개척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단풍미인 쌀은 20톤으로 5천만원 규모다. 지난 8월 20톤 수출에 이어 총 40톤이 수출됐다.

미국 내 로스앤젤레스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어 미국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고국의 맛있는 밥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으뜸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장

려하고 해외에서 돌풍이 일고 있는 K-푸드에 정읍 단풍미인 쌀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4년 정읍 단풍미인 쌀 브랜드를 개발했으며, 최근 단풍미인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지 운영체제를 개편했다.

특히, 생산 농가와 통합 RPC 등과 기적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생산부터 수매까지 소비자 맞춤형 쌀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다섯째 아이 출산한 다둥이 가정에 축하선물 전달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가 최근 다섯째 아이를 출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군은 "대신면에 거주하는 정병대·임선정 부부가 지난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 지난 8월 가정을 방문해 격려하고, 출산 축하선물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다섯째 출산으로 부부에게는 출산장려금 1000만원이 분할 지급되며, 첫남남 이용권(200만원)과 산후조리비, 추하용품 지원 등 각종 출산장려 혜택도 부여된다.

부부는 "출산과 육아로 힘든 부분도 많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다섯째 출산을 결심하게 됐다"며 "군의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섯째 아이 탄생은 지역의 축복이자 경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가 최근 다섯째 아이를 출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 낳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내년 출산지원금(현행 다섯째 1000만원~2000만원)과 산후조리비(현 1명당 50만원~200만원)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하용품지원(고창사랑상품권 40만원) △첫남남 이용권(200만원) △육아용품 무료대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깊이 새겨"

고창군, 관내 중·고등학생 동학농민혁명 순회교육

전북 고창군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교 순회강연은 (사)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진된다. 자라나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고창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수요조사에 응한 고창중학교와 흥덕중학교,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들로 37개반 7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3일 강호항공고등학교 3학년 8개반 160명을 시작으로, 6일에는 고창중학교 2~3학년 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흥덕중학교 진교생과 강호항공고등학교 1~2학년 16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강연이 이

어질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이 고창 출신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무장기포지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군은 전봉준 생가터와 지역적 민란에서 전국적 혁명의 시발점이 된 무장기포지,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에서 비결을 탈취해 무장기포의 기반을 다진 순화중의 도소서 등의 핵심유적을 보유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청소년들이 고창과 동학혁명의 의의를 깊이 새겨, 고창인으로서 자긍심과 애郷심을 가지고 고창군의 인재로 자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로컬푸드 생산자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8일에서 9일까지(1박2일) 소노벨 별산에서 '로컬푸드 생산자 한마음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약 80여 명의 로컬푸드 출하 농가와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전진대회는 부안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가들의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푸드플랜 참여 농가 중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생산자 5명에게 군수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 농가 간 정보를 교환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출하회



발족과 생산자 역량 교육을 포함한 로컬푸드 아카데미 활성화 교육을 통해 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연계하여 수요 예측에 기반한 기획생산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이 코로나 19등의 힘든 여건에서 역년 반 여년 만에 매출 30억 달성과 누적 방문객 10만 명 돌파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룬 것은 생산 농가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신태인,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열어

정읍시가 후원하고 정읍시 신태인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대표 모명숙)가 주최·주관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지난 8일 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열렸다.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신태인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소풍·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이듬달과 안전한 야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민들은 조별로 나눠 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 광장의 나무 22개에 전구와 소품을 활용해 장식한 후 트리의



불을 밝혔다. 점등식에서 주민들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트리의 등불이 신태인 전역에 비취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를 기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